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다국적 농기업의 특성과 과제**



#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다국적 농기업의 특성과 과제

임송수(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2.9%에 불과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sup>1)</sup>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 86.1%, 보리 16.9%, 밀 0.7%, 옥수수 0.9%, 콩 9.5%이다. 사료용 곡물을 뺀 식량 자급률도 45.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자급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해 온 스위스 52%(2009년 기준)이나 일본의 23.2%(2009년 기준)보다도 낮다.

이처럼 국내 식량 수요 상당부분을 외국의 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또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성 속에서 식량안보는 농정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의 유지나 확충을 강조해 왔으며, 1990년대 후반(외환 보유액과 환율 위협)과 2000년 후반(가격 폭등) 각각 경험했던 국제시장의 커다란 변동성과 수출국들에 의한 곡물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조치가 식량안보를 실제로 위협할 수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었다(John 2014).

이밖에도 국제 곡물무역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에 의한 무역 독점 문제가 흔히 제기된다. 이른바 곡물 메이저에 의한 시장 집중화는 “농업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내지 “식량

\* songsooc@gmail.com, 02-3290-3033.

1) 자급률 산출에 포함된 품목은 쌀, 보리, 밀,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등이다.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국내 소비량은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감모량 등을 포함한다.

공업화(food manufacturing)”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세계적으로 확대된 공급체인 속에서 식량이 마치 일반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대규모 생산체제 아래 표준화 되어 유통되도록 기여하였다(Scanlan 2013).

이 글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곡물의 국제무역에 관련하여 국제 NGO의 비판적 관점이 반영된 Murphy et al.(2012)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와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 2. ABCD 농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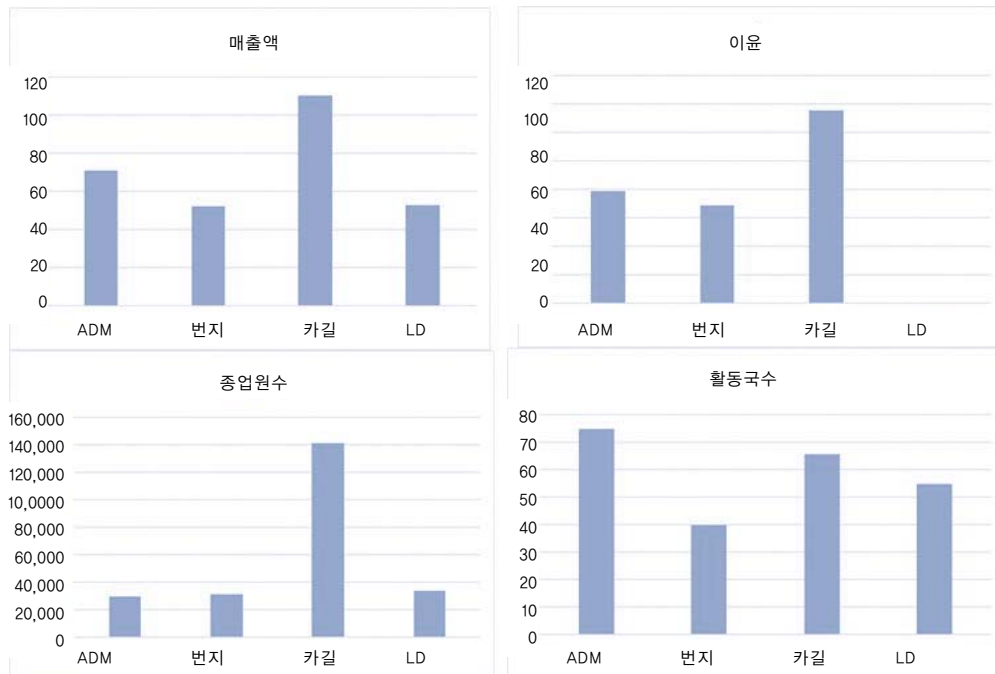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농기업은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Archer Daniels Midland: 이하 “ADM”), 번지(Bunge), 카길(Cargill), 루이스 드레퓌스(Louis Dreyfus; 이하 “LD”) 등 이른바 ABCD업체이다.<sup>3)</sup> ABCD 농기업의 분석표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BCD 중 최대 규모의 농기업은 카길로 2011년 매출액이 1,195억 달러(약 122조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LG 그룹 매출액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그 다음은 ADM이 807억 달러(약 82조 원), LD가 596억 달러(약 61조 원), 번지가 587억 달러(약 69조 원) 순이다.

ABCD 농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도 상당히 폭 넓다<표 1>. 곡물이나 기타 농산물의 직접 무역뿐만 아니라 곡물과 육류의 가공, 비료와 종자 등 농자재 공급, 자문 서비스와 보험, 운송과 보관, 금융서비스와 농지획득 등도 비즈니스 대상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으나, 예를 들면, 카길과 ADM 및 번지는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콩의 60% 가량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에 대한 종자와 비료 및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공급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ABCD 농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지배력은 무엇보다 곡물 엘리베이터와 기차와 배 등 운송수단 및 물류체계를 독점적으로 운용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http://libertyparkusafd.org/lp/NatureFirst%20USA/food%20industry/Rising%20Market%20Control%20of%20Transnational%20Agribusiness.pdf>

3) 기업의 영문 이름에서 첫 글자를 따서 ABCD로 지칭한다.

그림 1. ABCD 기업의 분석표



주: 1. 매출액과 이윤은 10억 단위 기준임.  
 2. 매출액과 이윤은 2010-11년 평균임.  
 자료: Murphy et al.(2012)

## 2.1. ADM(Archer Daniels Midland)

ADM은 1902년에 설립되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개된 기업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다. 주요 품목은 밀, 옥수수, 팜유, 코코아 등인데 이들의 가공시장 규모 측면에서 세계 3위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Cropwatch 2012). ADM은 가공식품 이외에도 가축 사료, 농화학제, 에너지 관련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75개국에서 총 265개 품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품목은 콩이다. ADM은 브라질에서 대규모 콩 가공 산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가공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제1위의 코코아 콩 가공업체로서 ADM은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원료를 조달하고 있다. 팜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세계 최대 팜유 무역기업인 윌마(Wilmar International)가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ADM는 윌마 지분의 16%를 소유하고 있다.

표 1. ABCD 업체의 경제활동 영역

분야	대상	ADM	번지	카길	LD
상품	콩, 유지종자	√	√	√	√
	팜유	√	√	√	√
	옥수수	√	√	√	√
	밀	√	√	√	√
	주스(감귤류)			√	√
	코코아	√		√	
	커피				√
	설탕	√	√	√	√
	면화	√		√	√
	쌀			√	√
가공	곡물 제분	√	√	√	√
	기름 압착	√	√	√	√
	가공 식품	√	√	√	
	가축 사료	√	√	√	√
	바이오 연료 생산	√	√	√	√
	농산물 기반의 산업재	√	√	√	
	육류, 가금류, 달걀			√	
농자재 서비스	비료	√	√	√	√
	종자 판매			√	√
	계약 영농	√	√	√	√
	농가 자문서비스		√	√	√
	보험	√		√	
	축산농가 계약			√	
저장 운송	엘리베이터/저장	√	√	√	√
	운송	√	√	√	√
투자 위험관리	금융 서비스	√	√	√	√
	농지 획득	√	√	√	√

자료: Murphy et al.(2012)

이밖에도 ADM은 가축 사료, 중간재, 농화학제 등을 생산함으로써 중국에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ADM은 제2위의 에탄올 생산업체이고 유럽시장에서는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다.

## 2.2. 번지(Bunge)

1818년에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번지는 19세기에 그 비즈니스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확장하였다. 그러다가 그 본부가 1999년에 미국으로 이전되었다. 이런 연유로 세계화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남미의 곡물 무역에서 최고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번지는 남미 최대 비료 생산업체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40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번지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곡물, 유지종자, 설탕, 원당에 기반한 에탄올 등이다. 특히 콩기름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이며, 주로 브라질의 원당을 에탄올로 전환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이다. 다른 농기업과 마찬가지로 번지도 중국과 인도에서 그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2.3. 카길(Cargill)

카길은 미국 최대 민간 기업이며 규모가 가장 큰 무역업체이다. 1865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두 가계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다양한 농산물과 농자재 및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데, 카길의 비즈니스 사업영역은 크게, ① 농업 서비스, ② 식품 재료 및 활용, ③ 가공, ④ 위험관리와 금융, ⑤ 산업 등 5개이다. 각 영역별로 여러 개의 비즈니스 단위가 구성되어 있다.

카길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일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애완동물 식품을 다루는 주요 생산업체이며, 최대 정육업체 중 하나이다. 카길의 지점들은 곡물과 소고기를 호주에서 조달하여 가공하고, 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팜유와 가축 사료는 말레이시아, 팜유와 코코아는 인도네시아, 곡물과 유지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면화는 우즈베키스탄, 코코아는 가나 등에서 공급받는다.

## 2.4. LD(Louis Dreyfus)

LD는 1851년에 설립되었고 오늘날 본부는 프랑스에 있다.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며 주식의 20% 가량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산하의 “LD 상품(Commodities)”이 주로 곡물과 유지종자, 커피, 설탕, 밀, 쌀 등을 취급한다. 특히 “LD 상품”은 쌀과 면화의 주요 무역업체이며, 전세계 오렌지주스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LD는 브라질의 에탄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바이오디젤 정유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LD는 연간 약 136만 톤의 콩, 가축 사료용으로 100만 톤의 대두박, 3억 리터 이상의 바이오디젤 등을 각각 처리하고 있다.

## 3. ABCD 농기업의 경영 특성

ABCD 농기업은 그 규모나 사업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만 곡물과 기타 식량을 을 무역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으로서 자본(capital as power)이란 관점과 식량의 정치경제 틀 속에서 주요 농기업의 독점권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는 10가지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1. 농가 대상의 생산 지원을 통한 곡물 확보

농기업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곡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공급받고 있다. 농가의 의사결정 특히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느 시장에 등과 관련된 질문들을 답하는데 농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기업들은 투입요소와 다른 서비스를 농가에 직접 제공하고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곡물을 확보한다.

이러한 농기업의 전략은 농가로부터 곡물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어떤 곡물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된다. 특히 전문적으로 훈련된 팀을 구성하여 농가와 1:1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농가의 경영을 이해하고 그 수요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범위와 내용 측면에서

다양하나, 예를 들면,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집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까지 제공한다. 농기업과 연계된 농화학 및 종자회사를 통해 기술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카길은 몬산토(Monsanto)와 연계되어 있으며, ADM은 신젠타(Syngenta, 이전의 노바티스(Novartis))를 통해 농업 투입재와 기술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 3.2. 가격 설정과 시장 지배력

국제 시장에서 대량의 곡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농기업은 대규모 물량을 구입하면서 가격 설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가와 직접 맺은 계약도 그렇지만 농가가 출하한 곡물 엘리베이터와 관계에서 이러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된다. 브라질의 곡물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번지와 카길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농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중간 거래상이 존재한다.

이처럼 ABCD 농기업은 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수출국가의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닌다. 또한 이전에 장악했던 시장인 호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농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① 수평적 권력과, ② 수직적 권력이다. 모래시계로 묘사되는 수평적 권력은 “수많은 농가와 생산자 → 다수의 엘리베이터 → 소수의 가공업체와 수출업체 → 수많은 소비자”의 구조에 의존하는 농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한다.

수직적 권력은 농업의 가치사슬에서 농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서 비롯된다. ABCD 농기업은 엘리베이터로부터 곡물을 구입하여 그 중의 대부분을 가공한다. 농기업의 산하 업체들은 가공된 곡물의 대부분을 가축의 사료나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로 소비한다. 이러한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체계아래에서는 가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데, 곡물이 내부 운영비용의 일환이지 개방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기업들은 그 규모를 통해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그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사업 자체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농기업의 권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특성 때문에 세금 수준도 과하지 않다.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독과점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곡물 산업은 규모의 경

제에 기반한 효율성과 경쟁력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므로 기존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독과점은 공급자에 의한 시장 가격의 설정 권한과 직결된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을 단순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시장 지배력에 근거한 지속적인 이윤 창출은 결국 규모의 경제를 확충시켜 농기업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가 국제시장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독과점적 가격에 저항할 수 있을 테지만, 시장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 3.3. 대규모의 곡물 무역

ABCD 농기업이 특화한 농산물은 낮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생산되고 무역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무역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은 시장 가격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운송비, 환율, 엘리베이터 소유권과 기타 하부구조 등과 같은 시장 요인들과 수출신용(export credits), 원조 정책, 보조, 조세조치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도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곡물 무역기업의 이윤은 단순히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농기업들은 대규모 곡물 무역과 관련된 다른 활동 곧 농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기와 인덱스 펀드(index fund), 운송, 저장 등에서도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곡물가격이 농기업의 이윤에 중요하지만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농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비결은 대규모 무역을 유지하는데 있다.

곡물기업들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지선, 열차, 배 등의 가용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높은 가격보다 이윤을 창출하는 데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농기업들이 곡물이 투입 비용으로 간주되는 부가가치 활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의 경우 ABCD 농기업의 자회사인 일부 축산기업들이 손실을 입었으나, 이는 카길이나 번지의 경우 비료사업과 같은 다른 활동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었다.

둘째, 농기업들은 정보의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곡물의 수급 변화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농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변동이 큰 가격은 지식을 갖춘 투자자에게 호재가 되기 때문이다.

### 3.4. 원재료와 투입재 농산물에 초점

대규모 농기업들은 최종재로서 곡물보다는 가공식품에 필요한 투입재, 가축 사료, 바이오 연료 생산, 산업용 목적의 가공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콩, 밀, 옥수수, 팜유 등은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농산물이므로 서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이들 농산물은 주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무역된다. 다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특성으로 ABCD 농기업의 자회사인 이들의 활동은 일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한다.

### 3.5. 운송, 저장 및 로지스틱(logistics)

대규모 곡물의 무역에는 저장, 운송, 출하 등 상당한 수준의 계획과 관리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육로와 해상을 통한 다양한 곡물의 운송과 화물의 기획 및 추적 등이 포함된다. ABCD 농기업은 이런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무역업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농기업들은 국제 곡물무역에 필요한 국제 저장 및 출하체계를 소유하고 운용한다. 이러한 곡물 체계는 식량원조의 전달에 활용되기도 한다.

ABCD 농기업이 유지하는 곡물의 재고량은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미국과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공공비축 제도를 차츰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ABCD 농기업은 재고량을 늘려왔다. 이러한 재고량의 변화는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는 농산물 파생상품에 관한 농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ABCD 농기업의 저장 기능은 그들의 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 3.6. 인수 합병을 통한 지속적인 규모 확대

ABCD 농기업의 확대와 성장은 주로 농업 투입재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나 산업용 제품과 같은 신제품 확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와 합병이다. 예를 들면, 카길은 콘티넨탈 곡물(Continental Grain)을 합병하였고 ADM은 토에퍼(A.C. Toepfer)를 인수하였다. 카길은 또한 2010년에 새롭게 민영화된 호주 밀 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를 사

들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소리니(Sorini Agro) 기업 지분의 85%도 가졌다. 소리니 기업은 세계 제2위의 소르비톨(sorbitol) 생산기업인데, 소르비톨은 인공 감미료에 사용되는 설탕 알코올이다.

이러한 인수 합병은 규모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투입재를 국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높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이 당면한 스트레스는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자본을 찾는 일인데, 이러한 압박에 의해 번지는 지분을 공개하고, 카길은 비료 자회사를 공개매각하기도 하였다.

### 3.7. 토지이용과 원재료 확충의 신축성

농가의 생산을 지원하는 특성상 ABCD 농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농지에 관한 접근이다. 농지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농지소유와 통제에 관한 지역 규정, 농업 노동자 문제, 농지 획득 비용 등 다양하다. 농기업에 농지에 접근하는 수단은 ① 계약 영농, ② 대규모 농업 생산자와 공급계약, ③ 직접 생산을 위한 토지 임차, ④ 직접 생산이나 임차를 위한 토지 소유 등이다.

계약 영농에 관한 사례로는 ADM가 멕시코 기업인 마세카(Maseca)의 지분 22%를 소유하고 밀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마세카는 멕시코의 최대 옥수수 밀가루와 토틸라(tortilla) 생산자이다. 농지를 직접 소유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카길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 2곳을 운용하고 있다.

### 3.8. 독립적 토지 접근

농기업이 소유한 토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금융 자회사가 공유한 토지일 수 있고 모기업에 토지를 임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LD 자회사인 LD 상품(LD Commodities)은 칼릭스(Calyx Agro)를 설립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영농 계약을 통해 이러한 토지를 관리하고 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지의 임차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농지에 접근하는 방식은 미래의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다국적 식품회사들은 플랜테이션(plantation) 형태의 생산이나 생산 위험에 직접 관련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으나 물이나 토양과 같은 천연자원에 관한

접근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이런 추세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 3.9. 적극적인 위험 및 금융관리

국제 곡물 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흉작, 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공급체인에 고정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격과 달리 농기업이 관리하는 곡물은 부피가 크고, 저장에 큰 비용이 필요하며, 특정 기간에 수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농기업은 수급과 관련하여 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ABCD 농기업의 금융 및 위험관리 부서는 규모가 크고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위해 선물시장에 참여한다. 헤지펀드(hedge fund)와 다른 금융수단을 동원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증대를 추구한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헤지(hedge)하고 있다.

ABCD 농기업은 자산관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농업이나 식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2004-11년에 카길은 작물 영양소와 사료 원재료의 세계적인 생산 기업인 모자익(Mosaic) 주식의 2/3를 소유하였다. 카길은 또한 2003년에 자산 규모가 5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Black river Asset Management)를 설립하여 세계 식품과 농지자산에 투자하였다. 이 헤지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남미의 양식장, 중국의 유제품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시장 및 농업 생산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추세에 부합한다. 많은 민간자본, 자산관리 기업, 연기금,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농산물 선물, 농지, 생산된 농작물 등 이른바 “대체 자산(alternative assets)”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 수준이 너무 높아 투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농업 관련 자산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3.10. 법규정 설정에 적극적인 참여

대규모 농기업들은 농식품 산업의 틀 안에서 제정되는 법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직접 로비, 정부의 의사결정 자리에 자사의

직원 심기(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 로비를 위해 전직 공무원의 자사 고용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다. 이 밖에도 무역, 생산, 투자규정에 관한 다양한 공공 토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농기업들은 산업의 민간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면, 각 ABCD 농기업은 지속 가능한 팜유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에 참여하고 있으며, UN의 비즈니스와 인권 회의에도 동참한다. 자사 활동과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미디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ABCD 농기업 모두 세계의 기아 종식과 환경보호가 기업 활동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4. ABCD 농기업의 과제와 시사점

ABCD 농기업의 활동은 세계 농식품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와 운영, 농산물 파생상품 무역의 적극적인 참여, 식량과 사료 및 연료의 생산 기반으로서 대규모 농지의 인수와 합병, 금융투자 등이 식량가격과 소농의 삶에 미치는 연계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이처럼 ABCD로 대표되는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식량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150년 동안 커져왔다. 특히 2002-12년에 AMD, 번지, 카길로 구성된 무역기업군(Trader-Core)의 연평균 이윤 성장률은 26.7%로 소매 기업군(Retail-Core: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까르프(Carrefour) 등 상위 10대 기업)의 1.6%, 식품 기업군(Food-Core: 네슬레(Nestle), 펩시코(Pepsi-Co), 크래프트(Kraft) 등 상위 10대 기업)의 농업생산 기업군(Agro-Core: 몬산토(Monsanto), 포타쉬(Potash Corp.), 디에레(Deere & Co.) 등 상위 10대 기업)의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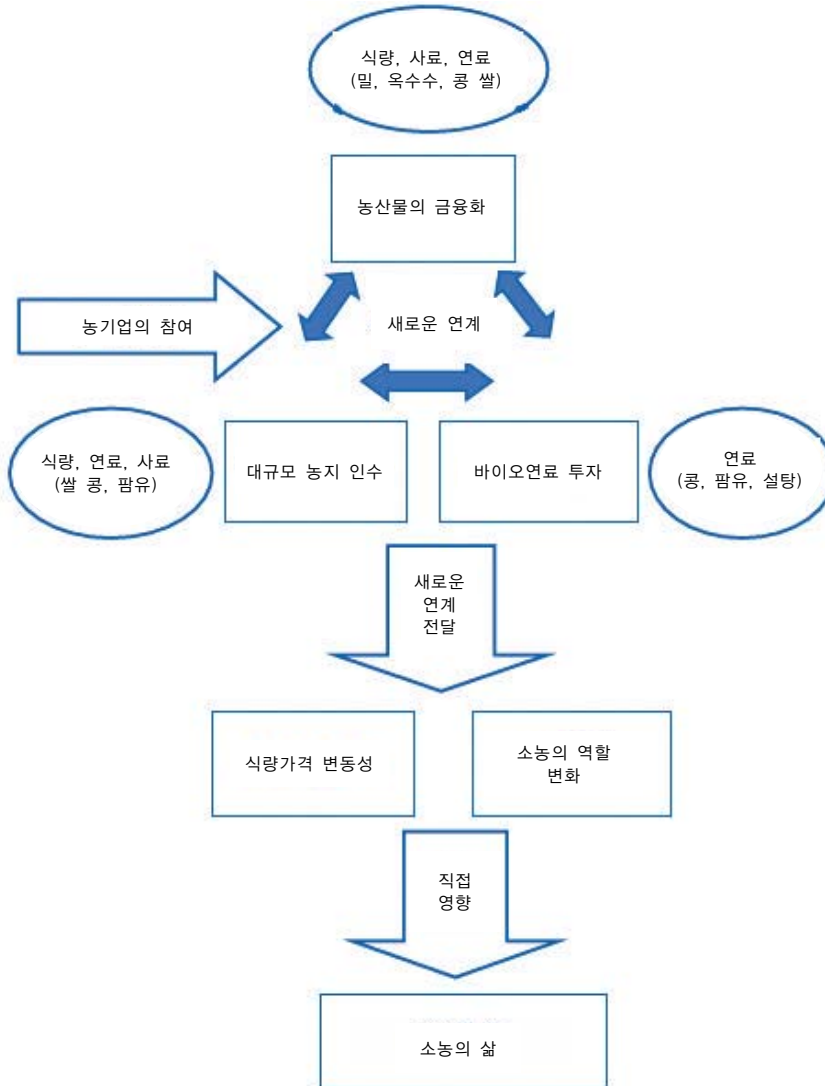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계속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첫째, 농기업이 기존 지위를 유지하거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의 식량체제 속에서 소매부문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부문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곡물 기업이 관여하

지 않은 신선 농산물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오늘날에는 식품 가공분야에서 경쟁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는 초콜릿 가공에서 카길과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4>은 세계 식품체제에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 슈퍼마켓 및 식품 도매업체, 농수산업체의 이윤 분배 추이를 나타낸다. 2000년 중반까지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의 이윤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슈퍼마켓과 식품도매업체의 비중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추이는 역전되었으나, 2011년 현재 슈퍼마켓의 이윤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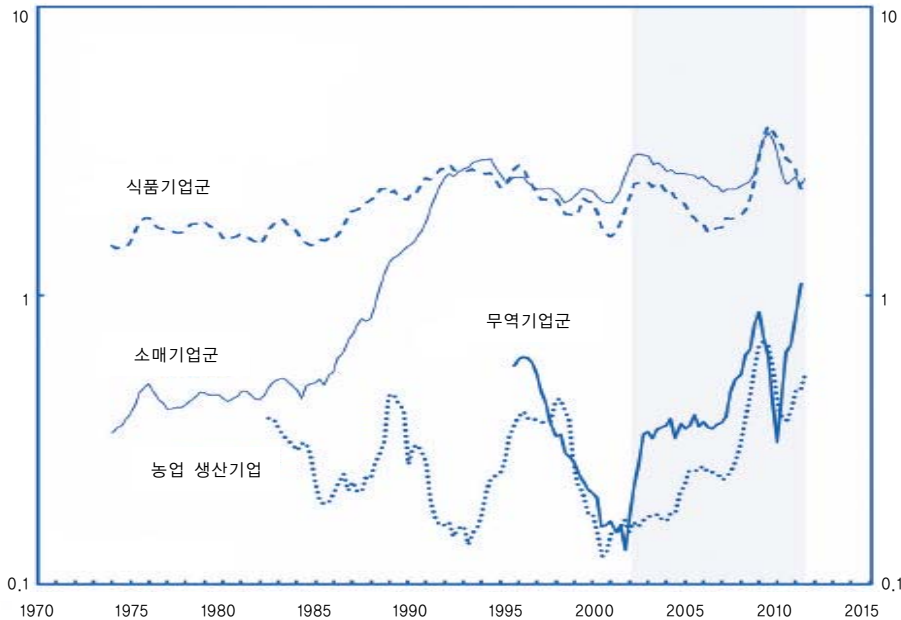
셋째, 정보기술의 세계화로 대규모 농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디 ABCD 농기업이 가족 소유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적 네트워크와 곡물 시장변화에 대한 이들의 지식이 존재한다(Morgan 2000).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값싸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림 2. ABCD 농기업의 활동과 식량가격의 연계



자료: Murphy et al.(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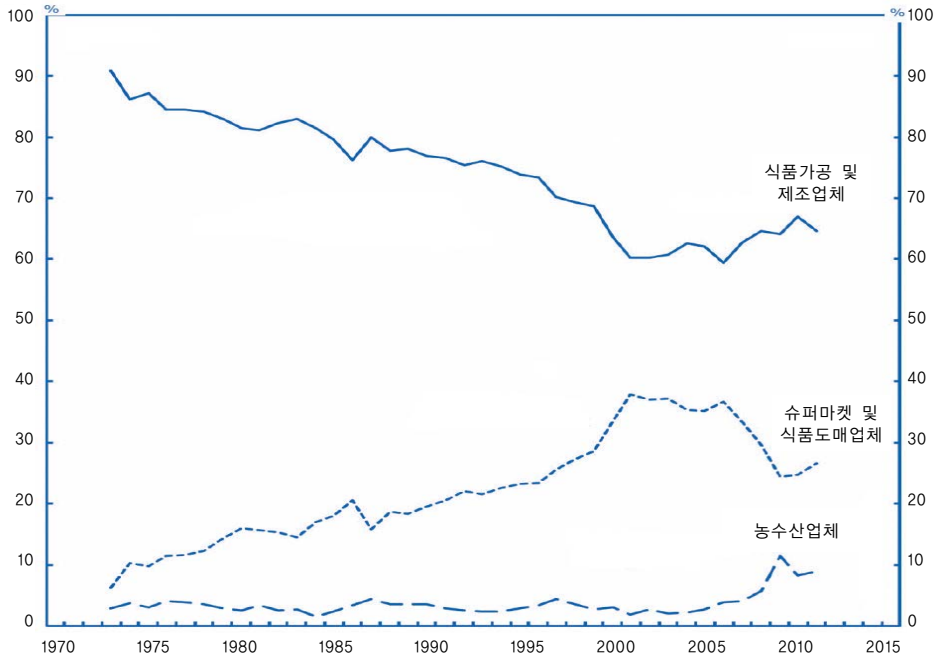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농식품 체제에서 기업군별 이윤의 연간 변화율 추이



주: 1. y축은 로그(log) 값임  
 2. 각 기업군은 각각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을 나타냄 단, 무역기업군의 경우 ADM, 번지, 카길 등 3개 기업만 포함됨  
 자료: Baines(2014)

끝으로,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이 기존의 식량 무역체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난 금융위기와 식량가격 폭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치 등은 식량안보 확충에 필요한 국제 곡물무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TO 도하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를 통해 많은 개도국들은 ABCD 농기업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무역자유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제시장 기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 식품체제와 무역체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원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4. 세계 농식품 체제에서 기업체군의 이윤 분배 비중 추이



자료: Baines(2014)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다국적 곡물기업의 전략,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은 식량안보 확충에 절대적인 요소로써 중요하다.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안정적 곡물 공급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곡물 수출국에서 엘리베이터 확보, 가격 경쟁력 보장 등의 한계에 직면하여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BCD 농기업과 같은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포기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외국의 경험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단기적 시장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은 미래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식품수급표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36/E05-2013.pdf](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36/E05-2013.pdf)
- Baines, Joseph. 2014. "Food Price Inflation as Redistribution: Towards a New Analysis of Corporate Power in the World Food System." *New Political Economy* 19(1):79-112.
- Cropwatch. 2012. ADM' s New Frontiers: Palm Oil Deforestation and Child Labor. [http://community.corpwatch.org/adm/pages/adm\\_palm.php](http://community.corpwatch.org/adm/pages/adm_palm.php)
- John, Adam. 2014. "Price Relations between Internaitonal Rice Markets." *Agricultural and Food Economics* 2(1). <http://www.agrifoodecon.com/content/2/1/1>
- Morgan, Dan. 2000. *Merchants of Grain: The Power and Profits of the Five Giant Companies at the Center of the World' s Food Supply*. iUniverse.
- Scanlan, Stephen. 2013. "Feeding the Planet or Feeding Us a Line? Agribusiness, 'Grainwashing' and Hunger in the World Food System." *Int. Jrnl. of Soc. of Agri. & Food* 20(3):357-382.